

#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조영달

교육인적자원부

# 머 리 말

이 연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다문화가정”이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새터민(탈북자)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아직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며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증가 추세에 있는 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산발적이고 체계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진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관한 조사 자료와 문헌을 수합 정리하고, 어린이와 그 가족, 담당 교사, 자원봉사자 등과 인터뷰를 하여, 현황과 실태를 제시하고 나아가 장단기 정책을 제언하였다.

연구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이나, 이 연구의 경우에는 논리 못지않게 감정이 개입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연구를 시작할 때 느꼈던 측은함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안함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바뀌어 왔음을 고백한다.

연구의 전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 - 공동연구원과 자문위원님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관계자 여러분, 좋은 연구의 기회를 주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같이 고생한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부서의 여러분, 특히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2006. 3. 12.

연구책임자

조 영 달

- 「이 정책연구는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 「이 정책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힙니다」

# 차 례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 II.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뒤처지는 아이들

1.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이 문제이다. ....	3
2.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시작하다. ....	5
3.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다. ....	6
4.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9

## III.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방치되는 아이들

1.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 ....	11
2. 학교 안 1,500여명의 아이들 .....	13
3. 학교 밖 8,000여명의 아이들 .....	15
4.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	16
5. 민간차원의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17
6.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20
7. 대안학교 설립의 움직임이 있다. ....	21

## IV. 새터민 가정의 자녀: 탈락하는 아이들

1. 빈곤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한다. ....	22
2. 취학률이 낮다. ....	23
3. 중도탈락률이 높다. ....	23
4. 낮은 학교 성적이 가장 큰 고민 ....	24
5. 민간 단체의 교육지원 ....	25

## V.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 외국의 사례

1. 미국 ....	26
2. 프랑스 ....	28
3. 독일 ....	30
4. 일본 ....	31

## V.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1. 현행 대상별 지원 대책의 정리와 보완 ....	32
2. 전문가에 의한 교육지원 종합 대책 ....	45

참고문헌 ....	49
-----------	----

부록: 인터뷰 자료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최근 들어 새로운 교육소의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다음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함.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보여주고자 함.

○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교육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그 문제의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원인 분석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민·관 차원의 노력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가?

→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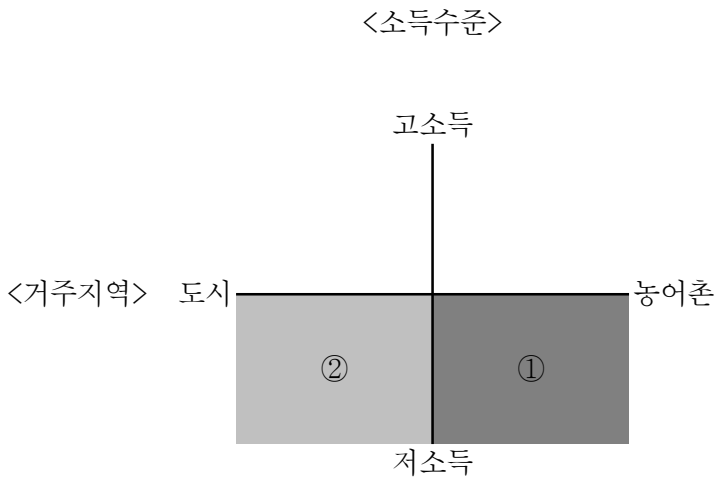
□ 이 연구는 문헌 분석 방식 이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등과의 인터뷰 방식이 활용됨. (인터뷰 결과는 “부록” 참조.)

## Ⅱ.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 —뒤처지는 아이들—

1.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이 문제이다.

- 농어촌,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
-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국제결혼 가정”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층에 속하면서 도시지역에 사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교육의 문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임.

□ 2005년 8월 현재, 여성결혼 이민자는 총 61,478명이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26,478명, 중국 11,602명, 베트남 5,993명, 일본 7,163명, 필리핀 3,771명 등임.

(2005. 8 현재, 단위: 명, %)

출신국	여성결혼이민자		02년 이후 귀화자	
	인원 수	%	인원 수	%
전체	61,478	100.0	10,948	100.0
한국계중국인	26,171	42.6	7,058	64.5
중국	11,602	18.9	1,856	17.0
일본	7,163	11.7	21	0.2
필리핀	3,771	6.1	1,765	16.1
베트남	5,993	9.7	83	0.8
태국	1,389	2.3	24	0.2
몽골	1,137	1.8	17	0.2
러시아	890	1.4	17	0.2
기타*	3,362	5.5	107	1.0

※ 기타: 구소련, 동유럽, 아시아 저개발국, 아프리카, 중남미, 선진국 등

※ 자료: 법무부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는 대부분 중산층 여성들로서, 본인과 가족들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국에 시집온 것으로 분석됨.

○ 학력은 고졸 이상이 2명 중의 1명꼴이며, 전문대 이상도 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 비율이 3:1 정도임.
-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4년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사는 남자 1,81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함. 이는 농어촌지역 전체 결혼 건수(6,629건)의 27.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총각 4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함.
- 농어촌지역으로 시집 온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879명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이 560명, 필리핀이 195명임.

## 2.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시작하다.

-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됨. 이에 따라 그 자녀는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붐을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함.
  -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출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임. 따라서 그들을 “코시안”(Kosian)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취학 현황을 보면,
  - 지역별 학생수는 경기(24.2%), 서울(11.2%), 전남(9.6%), 전북(8.4%), 경북(7.6%)의 순으로 초 87.1%, 중 9.5%, 고 3.4%로 아직은 초등학교생이 대부분임.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555	203	133	243	117	82	10	1,259	288	253	312	475	550	411	394	47	5,332
중	108	36	15	25	8	14	0	176	14	19	24	29	28	30	56	1	583
고	25	11	9	19	2	17	0	45	2	7	9	13	9	27	7	4	206
합계	688	250	157	287	127	113	10	1,480	304	279	345	517	587	468	457	52	6,121
시 지역	688	239	133	262	127	113	10	1,042	105	112	140	193	64	130	230	32	3,620
읍면 지역	0	11	24	25	0	0	0	438	199	167	205	324	523	338	227	20	2,501

※ 2005. 10,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 위의 표에서,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으로 분류된 2,501명은 거의 대부분 1997년 이후 본격화된 농어촌 총각과 중국,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추측됨.

### 3.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다.

□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함.

○ 국제결혼가정 2세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음. 따라서 언어 능력의 부족은 학습 부진을 초래하고 있음.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조사를 마치고 한 달 동안 세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생김새에서 드러나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교우관계는 좋았다. 그러나 세 학생 모두 매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세 학생 모두 당황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놀림을 받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학력에 있어서는 일반 학생에 비해 큰 차이가 났다.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현저히 뒤처지고 있었다. . . 하교 후 교실에 남겨 1시간씩 지도를 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학력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세 어린이의 집에 안내장을 보내어 어머니와 개별 상담을 하였다. (전북 A초등학교 교사)

□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함.

O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함.

※ 조선족은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문화도 저 문화도 아닌 조선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문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이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느 중국 조선족 어머니)

※ 둘째인 딸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요새 부쩍 엄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저런 것도 잘 못 가르쳐 준다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셋째도 요새 그러기 시작하고. . .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

□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함.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 수치는 우리 나라 초등학교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13.4%)과 거의 유사함.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3,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13.4%에 해당하는 학생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 그러나 우리 나라 학생이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름.

- 우리 나라 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해서'(29.4%)인 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그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임.

※ 자료: 설동훈 외, 2005.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자살 충동, 적개심 등)을 경험하게 됨.

- 여러 가지 자료와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10명 중 1명꼴로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하였으며,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자는 10명 중 2명 정도인 것으로 추측됨.

#### 4.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진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함. 교육적인 면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음.

- ① 부모(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교육, 한글교육
- ②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상담, 보충학습
- ③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이해 교육

- 사례: 전라북도 교육청의 국제결혼 가정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2005년 11월에 도 교육청 내에 국제결혼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담팀에서는 2006년 2월에 국제결혼 가정 신입생 입학에 위하여 발송되는 안내 자료를 4개 국어로 발간하여 가정에 보냄.
- 글로벌 에티켓 교재를 개발하여 이번 신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지도하고, 한글 교재를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펴내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우리 글과 우리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을 운영함.  
이를 통하여 한글을 지도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도록 함.
  
- 일선 학교로 하여금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사랑방’을 운영하도록 하여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부모와 교사 또는 자원봉사자간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한글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
  
- 2006년 1월 15일에는 초·중·고교 입학을 앞둔 혼혈학생 140명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우리는 하나’ 행사를 개최함.
  
-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http://www.jbe.go.kr/JBEWAO/Index.aspx>

### Ⅲ.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방치되는 아이들—

1.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

□ 등록 외국인(불법체류 포함) 중 취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287명으로 추정됨(이하,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조사 자료에 의거함).

○ 이 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 유입 가능 인원은 약 9,500명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학교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구분	초	중	고	계
2003년도	570(131)	191(6)	76(2)	837(139)
2004년도	615(84)	207(26)	99(5)	921(115)
2005년도	995(99)	352(43)	227(6)	1,574(148)

※ ( )는 불법외국인 자녀로서, 전체수에 포함됨.

○ 이들 중 988명(62.3%)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음.



□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①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 ②양육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④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국적 취득의 권리, 휴식·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⑥교육받을 권리,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 만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만 발급받아 인근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입학해 수료 후 정식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음.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비록 청강생 신분으로나마 우리 나라 공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개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조사에 의하면,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35%), ‘한국말을 못해서’(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15%) 등으로 나타났음(설동훈, 2003)

## 2. 학교 안 1,500여명의 아이들

□ 학교 안 1,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학교 적응의 양상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즉,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함.

□ 심각한 언어 문제

-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56%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낮은 성적이 16%, 따돌림, 구타, 교우 문제가 20%, 생활 수준의 차이가 4%를 차지함.

(단위: %)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50명)	(31명)	(19명)
미숙한 한국어	30.0	32.3	26.3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들	26.0	32.3	15.8
낮은 성적	16.0	3.2	36.8
따돌림, 놀림, 구타	12.0	16.1	5.3
친구 사귀기가 힘들	8.0	6.5	10.5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4.0	6.5	-
기타	24.0	29.0	15.8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3.

□ 모국에 대한 긍지 상실

- 특히 외모로 외국인이 판단이 안 되는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경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자신의 국적을 창피해하며 숨기려는 경향이 있음.

□ 나이와 맞지 않는 학년 배정의 문제

- 학년 배정의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2~3살 어린 같은 반 한국학생에게 반말을 듣거나 성적이 낮게 나와 상처를 받기도 하며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급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향이 높음.
- 나이 어린 학급 동료와의 학교생활이 재미없어 장기적으로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함.

### 3. 학교 밖 8,000여명의 아이들

□ 8,000여명의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중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재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앞에서 언급한, 재학 연령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5%가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따라서, 8,000여명의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중에서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그 나머지도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파트타임으로나마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취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 아이들은 정식 취업과 파트타임을 병행하고 있다. 직장을 구했을 때는 정식으로 취업해서 일하지만 직장을 잃게 되면 친구들 소개로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한다. 직장을 구할 때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채용될 수 없을 듯해서 체격이 큰 아이들은 나이를 속이기도 한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고용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노동에 종사하는 아이들 중에는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녀 교육’).

#### 4.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 바쁜 생활 가운데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많음.

○ 학원 원장에게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부탁하기도 함. 이들이 보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 ‘교육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도 있을 정도임.

○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 부모의 절반 이상인 51.1%가 자녀가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고등학교 19.3%, 대학원 박사과정 14.8%로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전체 (94명)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41명)	미취학 (7명)	취학 (25명)	미취학 (21명)
중학교 이하	6.8	10.8	.0	8.0	.0
고등학교	19.3	10.8	16.7	32.0	20.0
전문대학(2년제)	2.3	5.4	.0	.0	.0
대학교(4년제)	51.1	59.5	66.7	36.0	50.0
대학원 석사과정	3.4	.0	16.7	4.0	5.0
대학원 박사과정	14.8	13.5	.0	20.0	15.0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음	2.3	.0	.0	.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3

## 5. 민간차원의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합법 취업 생산기능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가족의 동반은 사실상 금지되므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그 자녀는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분류됨.

□ 1990년대 후반 이후 종교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이하, 설동훈, 2003 참조).

(2000년 현재)

구분	단체 수	비율(%)
시민운동 단체	5	5.6
종교계	79	87.8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단체	6	6.7
계	90	100.0

※ 2005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센터의 수는, 그 규모가 작은 것까지를 모두 합치면 대략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수와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요망됨.)

○ 종교계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전체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함.

- 시민운동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이 있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의료공제회’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또는 염가로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 외에도, 교회나 성당 내에 작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직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는 수도권에 73.3%, 부산권과 대구권에 각각 10.0% 분포되어 있음.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공장 밀집 지역에 살고 있음을 의미함.

구분	단체 수	비율(%)
수도권	66	73.3
대전권	3	3.3
부산권	9	10.0
대구권	8	10.0
광주권	4	4.4
계	90	100.0

-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가 하는 활동으로는 운동경기나 축구 등 각종 행사 86.4%, 의료지원사업 76.5%, 소식지 및 출판물 제작 65.4%, 각종 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64.2%,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42.0% 등임.

구분	비율(%)
각종 행사	86.4
의료 지원 사업	76.5
소식지, 출판물 제작	65.4
연대 사업	64.2
컴퓨터 운영	42.0
각국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지원	35.8
국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 사업	13.6
국제결혼 가족 모임	7.4
기타 사업	30.9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를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그 중 가장 인기있는 것은 한글교육으로서, 전체 단체의 85.5%가 실시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종교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각각 84.3%, 32.5%를 차지함.

교육내용	비율(%)
한글 교육	85.5
종교 교육(전도와 포교 사업)	84.3
컴퓨터 교육	32.5
국내법 교육	26.5
산업안전 교육	25.3
성교육	12.0
기타	33.7



## 6.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안산과 시흥 지역의 초등학교 1곳씩을 선정, 특별학급 2개반을 2006년 봄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함.
- 학교 선정이 끝나면 이들과 대화가 가능한 특별학급 담당 교사를 발령할 계획임.
- 특별학급은 6~15세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15명씩으로 편성하며, 학년 구분 없이 수업을 받도록 함.
- 이들은 정규 교과 수업 이외에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이수하게 됨.
- 그들 가운데 학습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 일반 학급에 배정할 방침이며, 이들이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졸업장과 함께 중등학교에도 진학시킬 계획임.
- 특별학습의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2007년부터 화성, 남양주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특별학급을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임.

## 7. 대안학교 설립의 움직임이 있다.

□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교사 300여명이 모여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부지가 확보된 상태(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야산 2,000여평)이며, 유치원에서 초·중·고교 교육과정 전체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임.

## IV. 새터민 가정의 자녀

### —탈락하는 아이들—

#### 1. 빈곤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한다.

□ 새터민 가정의 31.7%가 무직이며, 단순 노무자 10%, 장치기계 조작 23.3%였음.

구분	아버지	어머니
단순노무 종사자	6 (10.0)	15 (23.8)
농업, 임업, 어업숙련 종사자	0 (0.0)	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23.3)	2 (3.1)
판매 종사자	4 (6.7)	8 (12.7)
준 전문가	0 (0.0)	0 (0.0)
사무종사자	2 (3.3)	2 (3.1)
전문가	0 (0.0)	2 (3.1)
의회의원, 고위임원 및 관리자	0 (0.0)	0 (0.0)
무직	19 (31.7)	31 (49.2)
기타(사망, 복에 거주)	15(25.0)	3 (4.8)
계	60 (100.0)	63 (100.0)

○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 취학률이 낮다.

새터민 자녀 취학 현황(2004년 9월 현재)					
구분	초(6~12)	중(13~15)	고(16~20)	평생교육시설	계
취학대상자	223	167	411		801
재학생	191	82	27	3	303
취학률(%)	85.7	49.1	6.6		37.8

※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 새터민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5.7%인데 비해, 중학교 취학률은 49.1%, 고등학교 취학률은 6.6%임.

※ 2005년 현재, 우리 나라 학령기 청소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각각 98.8%, 94.3%, 92.2%임(2005년도 교육통계연보).

## 3. 중도탈락률이 높다.

최근 6년간 입학생 대비 중도탈락 현황(1999~2004)					
구분	초(6~12)	중(13~15)	고(16~20)	평생교육시설	계
입학생	283	136	76	6	501
중도탈락률(%)	3(1.1)	22(16.2)	11(14.5)	2(33.3)	38(7.6)
졸업생	86	31	35	2	154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 1999년에서 2004년 3월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1.1% 인데 반해,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6.2%, 고등학생은 14.5%에 이르고 있음.

※ 남한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학생 1.1~1.9%, 일반고 1.1~1.7%, 실업계 4.0~5.1%임(2004년도 교육통계연보).

□ 새터민 중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의 8~15배이며, 북한이탈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전체 일반고 학생의 8~13배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3~4 배에 달함.

#### 4. 낮은 학교 성적이 가장 큰 고민

□ 새터민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학교성적’(73.9%)이었음.

○ 특히 중학생(90.3%)들이 초등학생(58.8%)보다 학교성적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컸음.  
초등학생의 경우엔 ‘말씨가 다른 것’(20.6%)에 대한 고민이 성적 다음으로 많았음.

※ 자료: 김미숙, 2005.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것	20(58.8)	28(90.3)	48(73.9)
말씨가 다른 것(북한 사투리)	7(20.6)	0(0.0)	7(10.8)
어려운 가정 환경	1(20.6)	0(0.0)	1(1.5)
외모(키, 얼굴, 몸매 등)	3(8.8)	2(6.5)	5(7.7)
친한 친구가 없음	2(5.9)	1(3.2)	3(4.6)
가정의 불화(부모형제의 다툼, 이혼 등)	0(0.0)	0(0.0)	0(0.0)
선생님의 무관심	1(2.9)	0(0.0)	1(1.5)
계	34(100.0)	31(100.0)	65(100.0)

## 5. 민간 단체의 교육지원

- 2005년 12월 현재, 15개의 민간 단체가 새터민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운영 유형	단체 수
생활공동체, 대안학교	5
방과후 공부방, 보충학습	5
특성화 고교	1
기타	4
계	15

-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돕기 위하여 생활공동체 성격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5곳, 방과 후 보충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5곳이며, 특성화 고교를 운영하는 단체가 1곳임. 그 외 4곳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직업훈련 또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 15개의 시설 중 13개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는 충남 천안과 부산에 각각 위치하고 있음.

## V. 교육소의 계층을 위한 배려

### — 외국의 사례 —

#### 1. 미 국

- 기본적으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은 의미가 없으므로 불법 이민자 정책과 관련됨.
- 불법이민자는 공적 서비스, 민간 서비스에 수급자격(eligibility)은 있다고 하나 실제로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accessibility)는 매우 어려움.
- 임신 여성 및 불법이민자의 아동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
- 불법이주 임신여성의 출산과 보호,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의 사회복지 권리가 보장됨.
- 미국은 비영리기관인 “여성·유아·아동을 위한 보충적 식품지원 프로그램”(WIC,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을 운영함.
- 수혜자 자격 결정은 공공기관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아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의료 및 자녀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K-12: 평생 학부모 교육”이라는 화상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교육을 부모가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

- 무료·실비 급식프로그램, 헤드스타트(Head Start: 조기유아교육), 텍사스 주의 의료 지원 제공의 제한 완화, 캘리포니아 대학교육비 혜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 교육소의 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은 연방정부의 주도로 1964년 경제기회보장법을 시작으로 성인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이어짐.
-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관련법에 기초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학교중심 프로그램 이외에도 학생의 건강, 영양상태, 생활조건, 가족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제공됨.
-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 회사, 사회복지단체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됨.
- 이민자도 이런 교육소외계층에 포함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 프 랑 스

- 1981년 이후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선교육지대”(ZEP: Zone d'éducation prioritaire)가 시행됨. 이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의 평등한 접근을 위해 ZEP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보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도달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 모든 지식 습득의 기본으로서의 언어 숙달에 많은 비중을 지원하되, 새롭게 발달하는 매체를 통해 언어적 의사전달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영상교육을 강화함.
- 만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만3세부터 유치원에 다니게 함으로써 특히 언어 습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실시함.
- 생활환경이 열악한 ZEP의 학생들을 위해 교사교류,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안내책자 배부 등을 통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돕는 지원을 함.
- 공화국의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함. 이는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출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병행하여 이루어짐.
-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자치단체의 복지, 주택 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우선교육망을 설치하여 우선교육의 실행의 경험과 방법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상황관 및 학군별 자료관을 설치하여 담당자들을 도움.
- 각 지역의 조정과 신입교사 지원, 모든 교사양성소(IUFM) 교육 참여 등을 통해 교사 지원 활동을 강화함.

### 3. 독일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증가를 예외적 현상, 단기적 현상이 아닌 세계화과정에서 중요한 지속적인 현상으로 파악함.
- “연방이민통합사무소”와 같은 부처간, 연방·지방정부간의 조정기구를 두고 있으며, 연방내무부 차원의 이민위원회를 두고 있음.
- 독일 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국가의 인력송출기관을 통하여 입국함.
-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족 프로젝트”로 보고 이에 대한 장기 대책을 추구함.
- 특히 자녀들이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직업교육, 언어 교육을 중시함.
- 독일어 교육은 물론 출신 국가의 언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가족 내의 세대간 통합 및 청소년 부적응을 예방함.
- 사회적 통합을 위해 통합을 저해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생산, 대중매체에서의 고정관념화 등을 경계함.
- 이를 위해 주거상의 통합정책도 실시하며, 여기서 어머니단체와 같은 지역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함.

## 4. 일 본

-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산업연수생제도/기능실습생제도에서 대규모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니케이진”을 도입해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음.
- 이 제도의 관리창구는 5개 정부부처 공동관할임.
-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간주하므로 실제 노동력 부족은 외국인 학생의 파트타임제도 및 니케이진에 대한 정주자 사증발급제도를 통해 해소하고 있음.
- ※ 이에 비해 한국은 성격이 각기 다른 사용자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부설기관이 관리창구의 역할을 함. 외국 인력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 및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 지역의 규모에 따라 교사용 지도 자료 혹은 소책자를 배포하며 일본어지도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 또는 일본어 지도 협력자 등을 배치함.
- 그러나 취학 연령인데도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미취학자의 비율이 평균 28.8%에 달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VI.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 — MELTING POT POLICY —

#### 1. 현행 대상별 지원 대책의 정리와 보완

##### 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 (1) 기본 방향

- 국제사회 속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실시
-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실시
- 교원연수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집단따돌림 예방 등의 교육내용 포함
-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 추진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 및 추진실적의 학교평가·교육청평가 반영('06)
-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으로 '06년 하반기까지 체계적인 대책 마련

###### (2) 주요 내용

##### □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강화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추진('07.2 고시예정)
  - 타문화 이해, 타인종에 대한 편견 극복 및 관용의 태도 함양

- 대학의 사회복지나 가족분야 학과의 교육과정에 결혼이민자의 인권 및 다문화관련 내용 포함 권고
- 유·초·중·고교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을 활성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06 지역교육청 중심)
  -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이 학교 수업에 참여, 지역문화의 밤 등 자국의 문화 소개
  - 학교에 다문화교육 담당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
- 교육청 또는 학교단위로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이민자 모국에 대한 문화배우기 및 한국어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가 직접 참여하여 모국의 노래나 요리를 가르치는 등 교육활동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토요일휴업일 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

□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

- 단위 학교의 책임 지도 강화
  - 국제교육 이민자 자녀 특별반 편성 운영 권장
  - ‘06학년도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연계하여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방과 후 특별보충과정 운영
  -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과의 결연을 통한 책임지도 강화
  - 학교단위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교 적응 및 학력 향상 도모
- 교육청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대상 방과 후 특별교실 시범운영(경기 2개소, ‘06.3)
    - 외부(전문)강사, 학부모, 퇴직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인적자원 적극 활용
    -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모델 개발
-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 결혼이민 자녀 학습지도 우수사례 발굴·보급(수시)
  -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06.9)
  - 중앙교수학습센터를 활용한 학습자료 및 교육정보 제공

<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

○ 학급별 소집단 그룹활동 활성화

- 집단따돌림·집단폭력 역할극 하기, 집단협동 놀이 및 활동하기
- 선생님과 비밀이야기 하기, 좌석 배치 방법의 다양화

○ 학교 및 교육청 중심 상담활동 활성화

- 이민자 자녀 재학학교 상담실에 전문코너 설치·운영('06.3)
-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상담방법에 대한 교원연수 실시('06.8)
-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308명) 활용
- 상담자원 봉사자(4,399명) 및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7,770교) 활용
- 사이버 상담실 구축 운영 : 학교 홈페이지('06.3), 교육청('06.9)

○ 학생회 중심 집단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 유도

- 학교축제 등을 활용한 집단따돌림 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례발표회, 단막극, 역할극, 영상자료 등)
- 또래상담 등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 활성화 유도
- 토론문화 조성을 통해 상호 이해·배려하는 생활태도 육성

○ 학교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도시체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개펄탐사, 뒤뜰야영, 수련캠프 등)

□ 교원연수 및 장학지도 강화

○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방안 교원연수 실시

-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연수내용에 포함('06. 3~)

○ 장학지도 실시 및 학교평가·교육청평가에 반영

-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 추진에 관한 담임장학, 종합장학 실시('06)
-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 추진 실적 학교평가 및 교육청평가 반영('06)

(3) 시·도교육청 협조 사항

- 우리 부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시·도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추진
  - 시·도, 지역교육청에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담당 전담부서 설치 권장
- 정기적인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학생수 파악(매년 3월 중)

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 과제 1: 한국어(KSL)반 운영 등 학교내의 교육지원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 편성, 방과 후 한국어(KSL)반 운영 등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교육지원 활성화
  - 시도교육청 평가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 지원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06년 평가지표에 반영하되 모범사례 등 발굴 표창 실시)
  - 설치 학교에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학급운영비 특별지원
  - ※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의미
-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을 위한 우수교사 양성 및 유인책 시행
  -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 또는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방안 검토 ('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 ※ 한국어 전공자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험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증(1급~3급) 수여(국어기본법, '05.2월 개정)
  - ▶ 현재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후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부여
- 다양한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및 국제이해교육 강화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과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

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국경없는 마을’ 문화행사 등과 같이 외국근로자가족과 주민/아동 등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

□ 과제 2: 민간주도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센터」(가칭) 운영

-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의 학교밖 허브(Hub)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 체제 구축
  -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종교·민간단체 중에서 선정(16개 시도별 1개 센터)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일본어 및 일본 문화체득관련 강좌를 실비로 제공
- 학교교육 준비·보완 차원에서 학교적응을 위한 사전/사후 교육 실시
  - 한글 등 기초학습, 수업에 대한 보충학습, 과제물 돕기 등 학교적응을 위한 지도(학부모의 역할 담당), 문화정체성 및 정서함양 교육 실시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정보화 지원
  - e-러닝 이용환경 조성(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및 IT 교육실시

□ 과제 3: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자원봉사자(Social Worker)로 활용하여 방문지도 실시
  - 정규학교나 교육센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 지원
  - 교육청, 센터 등에 등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실소요 경비 지원
- ▶ 일본은 의무교육기관의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관할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를 강사로 채용하여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순회지도 실시



- 대학생 멘토링 시범운영 확대시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는 방안 협의 추진(외국어 및 한국어 전공 대학생 활용)
  -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희망대학교와 MOU 체결 등 사업 확대

□ 과제 4: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자녀 교육 담당자들의 학습 지도력 제고 및 사명감 고취 교육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양성
  -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외국인 자녀 교육담당자, 민간운영센터 교육담당자, 자원봉사자(Social Worker)에 대한 체계적 연수 시행
  - 연수 대상자들 간의 합동연수(분임토의)를 통해 학교교사와 민간기관 교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 ※ 2006년 교육일정: '06. 7~8월중 10일간 2개반(총 60명), 국제교육진흥원 주관

-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을 도입하여 연수 효과 극대화
  - 한국어문법 등 한국어 교수능력 배양과 국내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교육 및 상담기법 등 실제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과제 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학습권) 보장

-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상(법적지위)의 불안으로 사회생활 및 교우 관계가 위축되어 있고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함
  - ※ 부모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면 그 자녀들에게도(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포함)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대물림됨.
- 의무교육 학령기의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한해 체류자격부여 등 신분안정 보장책 필요(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한편으론 단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부간 정책모순 시정 필요
- ※ 부모 체류기간 중 한시적 영주권 부여 또는 부모가 강제 출국대상이 된 경우 출국시기를 자녀의 학기가 종료된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 거론(경향신문, '06.2.10)
- ▶ 일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재량으로 일본체류를 인정하는 체류특별허가제도(법무부 재량행위) 운용

□ 과제 6: 부내 각 실국의 관련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p>외국인 노동자 · 국제결혼 이민자</p>	<p>[평생학습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성인문해교육</li> <li>※ 평생학습도시의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7.2억원('06)</li> </ul> </li> </ul> <p>[정책조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전북 RHRD 센터 국제결혼 이주 여성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문화, 역사교육, 직업훈련 및 정체성 강화</li> <li>※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5개 시·도 선정, 100억원('06)</li> </ul> </li> </ul>
<p>국제결혼 이민자 자녀</p>	<p>[초·중등교육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종합대책 수립('06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시민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li> <li>-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실태조사 정책연구 추진</li> </ul> </li> <li>○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학생수 정기조사(매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학생수 6,121명 ('05.10 교육부)</li> </ul> </li> </ul>

## 다. 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 (1) 기본 방향

#### □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지원

-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업지도 및 사회적응 교육은 일반학생 교육에 비하여 엄청나게 높은 강도의 사명감과 헌신적 봉사 요구
- 학생들의 특수성에 부응한 교육 실시를 위해서 학교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과 신축성 요구
  - ※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되, 학교설립은 대안교육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이 담당
  - ※ 전문인력 확보 및 자율적·신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형태로 설립·운영(자율학교 지정)

#### □ 일반학교 내 교육지원 강화

- 새터민학생 밀집지역의 특별학급 운영 검토 및 편입학생의 학교 적응교육 강화로 중도 탈락자 방지
- 새터민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문인력 확보

#### □ 학교-대안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활성화

- 새터민 지원 민간단체 및 프로그램을 통한 대안교육 기회 확대, 학교와의 연계 제고

## (2) 단기 대책

### □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 2006년 개교

#### ○ 설립개요

- 학교형태: 사립 중·고 통합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설립규모 : 7학급 140명(중 3학급, 고 3학급, 취업 1학급)
- 설립주체 : 전인학원(경기 용인 소재 현산중 경영)
- 설립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 ○ 교육기간 및 내용

- 하나원의 적응준비기간을 마친 후 일정기간 본 학교에서 기초적응교육 이수(4~6개월)
  - ※ 기본적인 기초적응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개인별 학습수요 진단 실시
- 기초적응교육 단계 이후 일반학교 전학 또는 잔류
  - ※ 개인별 희망과 기초진단에 따른 진로상담에 기초하여 개별화된 이수 프로그램 수립
  - ※ 전학자에게는 개인별 학습수요진단과 결과 등 portfolio 전달
- 일반교과학습(진학, 검정고시), 특기적성교육, 직업훈련(외부프로그램 연계 실시), 일반교양, 치료상담 등으로 구성
  - ※ 개인별 준비도에 따라 가급적 일반학교로 전학을 권장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수학 허용

#### ○ 운영방안: 관계기관, 교육자, 전문가, 새터민 청소년 교육관련 민간단체 인사 등으로 폭넓게 구성,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관련 자문 실시

□ 일반학교 단계 교육 지원 강화

<학교내 교육지원>

- mentor제 운영 : 개인별 전담교사 지정, 종합적인 책임지도 실시(학습, 생활, 인성 지도)
-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대리가족제”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대안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 “부모·형제 맺기 운동” 실시
  - ※ 교육청에 탈북 청소년 교육사업 전담 지도교사 배치, 교육 지원
- 새터민 자녀 밀집지역 학교에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 운영
  - 학력보충, 소양교육, 사회문화 체험교육 등 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시
  - ※ Stigma 등을 감안, 학생 희망에 따라 실시

<학교밖 대안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중도탈락 예방)>

- 방과후 및 주말 등 대안교육기관을 활용, 학생 보호 및 교육 연계 지원
  - 학교와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자와의 협의체 운영, 연계 지도 실시
  - ※ 대안교육기관(새터민 지원단체),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복지기관 참여
-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 위탁, 일정기간 동안 별도 지정 교육프로그램 실시
  - 기존 새터민 청소년 지원단체들을 일정 심사를 거쳐 대안위탁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지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새터민 자녀 교육 민간단체 지원 확대
  - 교재비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교사 공동연수 실시

### (3) 장기 대책

-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한겨레학교) 시설 확충 및 학생정원 증원
  - 14학급 280명 규모로 확대(중 6학급, 고 6학급, 취업 2학급)

- 전문 교육인력 양성 연수

#### <정규교사 양성 연수>

- 특성화학교 교사, 일반학교 전담교사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현직연수 강화
  - 새터민 학생에 대한 심층적 이해, 북한 제도 실태 및 사회문화 이해, 새터민 학생 지도요령 습득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감안, 기존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연수기회 부여 및 예비 대체자원 확보

#### <지원인력 확보 및 활용>

- 새터민 자녀 지도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소속 대안교육 지도자 등을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
- 대안교육 및 새터민 교육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교육 지원인력으로 활용

□ 남북문화 이해교육 실시

- 새터민 학생이 다니는 일반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새터민 이해 및 문화 이해교육 실시
  - ※ 편견, 물이해로 인한 따돌림, 인권침해 등 해소를 위한 교육 실시
- 새터민 학생의 부모에 대한 남한 교육제도 이해교육 실시
- 새터민 업무 관련 각 기관 담당자에 대한 문화이해 및 소양교육

□ 새터민 청소년 교육연구지원센터 운영

- 새터민 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 새터민 청소년 교육자에 대한 연수·상담 등 전문능력 개발 지원
- 새터민 청소년 교육 상담실 운영 등 교육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 새터민 청소년 교육기관·단체간 Network 운영센터 역할
  - ※ 연구, 연수, 상담,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

## 2. 전문가에 의한 교육지원 종합 대책

### 가. 관리 단위의 개념 전환

#### “다문화교육특구”의 설치 및 교육관계망 형성

-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장
- 문화, 언어, 직업, 정체성 교육에 초점

####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 아동,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개선
- 주거상의 통합 정책 수립

### 나. 다문화의 적응과 수용

#### 학교 차원

- 방과후 특별 교실 운영
- 한국어반 운영
-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실 운영

#### 교육과정 및 교과서 차원

- 다문화 이해 교육 과정 도입
- 세계 시민 교육 과정 도입
- 교과서의 확장과 보완 (특히 사회관, 윤리과 등)



대학 차원

- 교양과목에 다문화교육 도입
-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교원대 등 포함)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포함

사회 차원

- 특성화 학교 (예: 한겨레학교, 지구촌학교 등)
- 취학 및 전입학 전 예비학교
- 성인 문해 교육
- 대리 가족제, 멘토링 (자원봉사에 의한 일대일 교육), 부모-형제 맺기 운동
- 평생 학습과 연계된 다문화 지원 교육

다.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반 연구 활성화

전문 인력

- 현직 교원
- 장학 지도
- 전담 교원 (교과 및 상담) 양성

기반 연구

- 기초 자료 수집
- 정책 구상과 실행에 관한 연구
- 교육 자료 연구 개발

## 라. 접근 방법 및 교육의 정보화

### □ 사이버 상담소 설치 운영

- 물리적 제한 없이 소수의 전문 인원으로 운영 가능
- 시간적 물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상시 상담 체제 운영 가능
- 외국인 상담에 대한 외국어 지원 용이
- 비대면(혹은 익명성 보장)으로 심리적 부담 해소

### □ 매체를 통한 교육 강화

- 피교육자의 지리적 시간적 제한 해소
- 일반 국민 대상 교육 용이

## 마. 관리와 조정의 종합화

### □ 장기적 대책: 통합적 관리 기구 구성

#### ○ 기능

- 기획: 종합적 장기적 대책 수립, 관계부처 업무 분장 및 조정
- 교육: 전문적 인적 자원 양성 및 재교육 (자원봉사 수준에서 탈피)
- 연구: 기초 기반 연구 및 관련 자료의 연구 개발
- 평가 및 조정: 사회 전반의 관련 기구 및 관련 활동 전반 관리

#### ○ 위상

- (1안) 총리실 산하 독립 기관 (현 교육과정평가원 형태)
- (2안) 교육부 산하 기관 (현 국제교육진흥원 형태)

□ 단기적 대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 기능

- 교육: 다문화 교육 관련 인적자원의 교육과 연수  
(교사, 상담원, 관리자, 학부모 등등)
- 연구: 기초 자료 수집과 기초 정보 관리  
기초 이론 연구  
정책 수행 및 시행을 위한 기반 연구  
관련 자료의 연구 개발 등

○ 위상

- (1안) 교육부 산하 재단 (현 재외동포재단 형태)
- (2안) 교육부 위탁 기관 (현 공동기기원이나 전 SRC 형태)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제11차 시민사회포럼.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 Morse, A.(2005), *A look at immigrant youth : prospects and promising practices*, Children's policy initiative: A collaborative project on children and family issue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1-004-XIE/200410/immi.htm>
- Education matters : Children of immigrants : how well do they do in school?*,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umber81-004-XIE.
- Beavers, L. & D'Amico, J.(2005),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 U.S. and State-level findings from the 2000 Census*,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and th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http://www.humanite.fr/journal/2005-04-06/2005-04-06-459786>

Vidal, D. & Bourtel, K.(2005), *Enfants d'immigrés, enfants discriminés*.

<http://www.chez.com/accueilenfantsmigrants/adresses-utiles.htm?>

L'accueil des enfants de migrants : Adresses utiles

Assemblée parlementaire(2003), *La situation des jeunes migrants en Europe*, Doc. 9645.

"*Rien ne sépare les enfants d'immigrés du reste de la société*", Le Monde, 12.11.05.

*Scolarisation des enfants immigrés*, Circulaire n°78-238 du juillet 1978.

*Pratique langagière des enfants d'immigrés dans leurs familles*,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sur la planification linguistique, université Paris V.

Silberman, R.(2004), *Le devenir des enfants de familles défavorisées en France*, Carré des Sciences.

## <부록: 인터뷰 자료>

### 요약

#### 어떤 점이 어려운가?

##### ○ 부모가 느끼는 어려움

- 경제 사정
- 부족한 한국어 실력
- 부족한 교육 시설(시골의 경우 유치원이 없음)과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고급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음)
- 문화의 차이
- 한국인 남편의 폭력

##### ○ 아이가 느끼는 어려움

- 낮은 국어 성적. 특히 받아쓰기(맞춤법)에서 어려움을 느낌
- 피부색이 다른 경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함
- 의사소통 능력 등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가 많음
- 정체성의 혼란

####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 ○ 부모의 바램

- 고급 수준의 한국어 강좌 개설
-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원
-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시설 운영(자녀교육, 일자리, 문화 차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함)

## O 교사의 바램

- 특별활동 프로그램(한국 전통 문화 체험, 국어 맞춤법 교육) 등을위한 예산 지원(학교단위)
-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아동의 교육을 위한 연수
- 문화교육: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알기” 프로그램 운영
- 언어교육: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 한국 문화 교실, 아동을 위한 국어교실 운영

## 인터뷰 자료 1.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대상: ○○○ (일본, 38, 여)

거주지: 전북 부안군 주산면

결혼: 1995년.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

자녀: 3명, ○○○(남, 2학년), ○○○(여, 1학년), ○○○

학력: 남편(고졸), 아내(전문대학 유아교육 전공)

가족환경: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의 아들과 딸, 남편, 아내, 자녀 3까지 9명. 남편이 자활 관련 단체에서 유기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자녀양육 및 농사일을 도움.

Q :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A :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미리 배우지 못했다. 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좀 있는 편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우리집의 경우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이다. (부안군에서 주안까지 오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있는 정도이니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Q : 가정환경이나 분위기는 어떠한가?

A :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의 아들과 딸, 우리 다섯 가족까지 해서 9명이 살고 있다. 아버지가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 시어머니가 농사일을 하고, 시누이가 외부에서 보내주는 돈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넉넉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아빠가 저녁 때 돌아와서 아이들의 숙제나 학습을 돌봐주고 있고, 친절한 편이다.

Q : 아이들의 학습은 어떠한가?

A : 아들 딸 모두 읍내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가까운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 아들의 경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한국말에도 서투르는데다



첫째이다보니 언어발달이 늦은 편이었다. 지금도 학습 이해도가 낮은 편인 것 같다. 특히 수학은. 딸아이의 경우 딸이기도 하고 둘째이기도 해서 또래랑 비슷하다. 읍내에만 살았어도, 사립 유치원에 보내면 한국말뿐 아니라 영어나 한자까지 가르쳐준다는데, 병설유치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 엄마가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으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라도 가르쳐주면 좋았을 것 같다.

Q :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주로 무엇을 하는가?

A : 돌아오자마자 숙제를 하고, 컴퓨터(1대)로 게임이나 채팅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한다.

Q : 사교육도 받는가?

A : 교통이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습지만 하고 있다.

Q : 학교에서 다른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A : 국제결혼 가정은 우리 아이들뿐이라 따로 마련된 것은 없지만, 시골이다 보니 따로 영어와 컴퓨터에 대해서는 지원한 아이들에 대해 방과 후 학습을 해 준다.

Q : 학교에 보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A : 아들의 경우, 언어 교육을 좀더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언어 능력이 갖추어지면 다른 학습도 좀 쉬워질 것 같다.

Q :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는?

A : 주산면에는 국제결혼 가정이 우리밖에 없지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Q : 주변에 국제결혼 가정이 많은가요?

A : 주산면에는 우리밖에 없지만, 부안군 전체에는 많다. 내가 알기로 일본인이 30여명, 필리핀인은 그 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인은 대부분 통일교를 통해 한국에 왔고, 필리핀의 경우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인 엄마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다. 필리핀인들도 따로 만난다고 들었다.

## 인터뷰 자료 2.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대상: ○○○ (필리핀, 39)

가족 관계: 5명, 시어머니와 남편, 아내, 딸(○○○ 3학년), 아들(○○○ 2학년)

학력: 남편(고졸), 아내(대졸)

직업: 남편-도배 및 집수리, 아내-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공부방 운영(영어 수업)

가족 수입: 남편이 고정된 수입이 없으므로 유동적이다. 일이 많을 때는 보통 수준이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어려운 편이다.

결혼: 95년에 한국에 와서 결혼했다.

Q : 가족 분위기는 어떠한가?

A : 처음에는 언어 차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고, 어느 정도 언어 소통도 가능하게 되어 지금은 잘 지내는 편이다.

Q :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

A :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따가운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영어 강사를 하게 되면서 주변의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다.

Q : 본인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A : 처음에 교회에서 기초적인 한국어 수업을 받고, 요리나 의복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외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 교육청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엄마들에게 무료로 기초 한국어 강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수강하지 않는다. 보다 고급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런 강좌는 개설되지 않기 때문이다.

Q : 자녀 교육은 어떠한가?

A : 처음에는 피부색도 다르고 필리핀에서 왔다는 편견 때문에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혼자 지내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만 놀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인식이 달라져서 요즘은 또래 아이들과 끈질기게 어울려 지낸다. 언어발달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은 편이다. 전반적인 학업 성적은 그냥 보통은 되는 것 같은데, 언어는 확실히 떨어지는 편이다. 받아쓰기는 특히나 어려워한다.

처음에는 내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아빠나 할머니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달에 5만원씩을 내고 한국어 과외를 받았다.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 것 같다. 요즘도 과외를 시키고 싶기도 한데,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보류하고 있다.

Q : 어머니의 문화라 할 수 있는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는가?

A : 아이들에게 영어는 가르치고 있다. 필리핀에 대해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하지만 따로 필리핀의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Q : 방과 후 교육 및 사교육은 하고 있는가?

A :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지낸다. 공부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한다.

Q : 교육적 지원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 부모들에게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강좌가 필요하고, 문화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도시 외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진안 같은 작은 도시에도 한국어 배우는 시설이나, 상담 시설 등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혜택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 그리고 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바란다.

Q : 다른 한국 학부모들과도 가끔 만나 자녀 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가?

A :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엄마가 있는 건 아니다. 학교 행사가 있으면 함께 어울리기도 하는데, 시골 엄마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한다.

Q : 아이들의 담임선생님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상담을 나눈 적이 있는가?

A : 그 반에 우리 아이들 외에 2명의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한 번 만나고, 한 번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다.

Q :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A :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언어와 관련된 부분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자녀 교육이나, 일자리나, 문화 차이 등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

### 인터뷰 자료 3. 국제결혼 가정 자녀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여)

Q :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 또래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 편인가?

A : 처음에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는데(1,2학년 때), 지금은 괜찮다. 공부방에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잘 논다.

Q : 학교 성적은 어떤가?

A : 금상과 동상을 여러 개 탔다. 받아쓰기는 어렵지만, 다른 과목은 재미있다. 학교 가는 게 재미있다. 남동생은 공부를 더 잘한다.

Q : 필리핀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인가?

A : 필리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5번 정도 가봤지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한국인 이어서 좋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응원을 열심히 한다.

Q :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특별히 나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없다. 따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없다.

Q : 방과 후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A : 주로 엄마 공부방에서 지낸다.

※ 엄마 인터뷰의 경우, 아이들이 어릴 때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녀 인터뷰에서는 그런 내용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지금 학업성취도는 보통 이상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성격도 활달한 편이었다.

※ 어머니의 경우,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자리를 얻게 되어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자녀 교육 등에도 더욱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므로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했다. 필리핀 엄마 외에 일본 엄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 수준을 넘어서는 고급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정교한 언어 구사를 할 수 없어서 본인들이 매우 답답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자녀가 한국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런 관심에 비해 정보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느끼고 있었다.

#### 인터뷰 자료 4.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대상: ○○○ (전라북도 장수 초등학교 교감)

Q : 현재 장수초등학교의 국제결혼한 가정의 아동은 몇 명 정도인가?

A :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4명, 4학년 2명, 5학년 1명, 6학년 2명 모두 12세대 2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형제인 경우가 있는데 형제 숫자도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Q : 국제결혼한 가정의 부모는 대개 어느 나라인가?

A : 부모 중 모두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일본인 12명, 중국인 4명, 필리핀 4명으로 일본인이 8세대로 가장 많다.

Q :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A : 일본인이나 중국인 어머니 사이의 아동은 외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동들 사이의 따돌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좀 검기 때문에 간혹 아이들 사이에 ‘깜둥이’ 라고 별명처럼 부르는 사례가 있었다. 별명은 한국 아이들 사이에서도 심한 충격을 주는 때가 있곤 했지만, 이 경우 아동보다 학부모가 충격을 받을까봐 상담도 해 주고, 아이들에게도 주의 를 주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Q :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학교 성적은 어떠한가?

A : 크게 문제되는 과목은 없는 듯한데, 특히 국어 성적은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 언어는 대부분 어머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아동의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종종 있다.

Q : 방과 후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 국제결혼 아동을 위한 특별활동을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다. 한국 전통 문화 체험 과 한국 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국어의 맞춤법을

어려워하는 아동을 위한 특별 교육도 고려하고 있다.

Q : 정부차원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A :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각 학교별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사들을 위한 국제결혼 아동 교육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점점 이러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본다.



## 인터뷰 자료 5.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대상: ○○○ (장수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

Q : 현재 몇 명의 국제결혼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가?

A : 올해 일본인 어머니를 둔 두 명의 아동이 우리 반에 있다.

Q : 아동의 학업 수준은 어떠한가?

A : 일단, 일상 한국어는 잘 하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어 이해 실력은 떨어진다. 의사 소통 능력과 학업 능력은 아동의 경우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맞춤법은 약한 편이고 국어나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이해력을 요하는 질문에는 잘 답하지 못한다.

Q : 아동의 학업 능력은 개인차이 때문인가? 환경차이 때문인가?

A : 개인차이도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차이 때문이라고 본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 부진이 심하다. 특히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이 언어 실력이 낮고 언어실력은 학업부진으로 나타난다.

Q : 아동의 교우 관계는 어떠한가?

A : 보통 국제결혼 자녀는 소극적인 편이다. 성격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은 아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Q : 아동의 어머니의 학교 참여도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

A :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 반은 도서관 야간 도우미로 요청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학교행사에 오실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인 것 같다.

Q : 국제결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은 어떤 것이 좋겠는가?

A : 우리학교에 이러한 자녀가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해

봤다.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에 잘 적응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언어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8살 정도의 학령 아동은 한국어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고 학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학교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알기” 등의 날을 정해 각 나라 어머니들이 학교에 와서 일일 도우미로 교사 활동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문화도 알고 다른 나라 문화도 알면 한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인터뷰 자료 6.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대상: ○○○ (장수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Q : 현재 몇 명의 국제결혼 아동을 지도하고 있는가?

A :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 4명,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 1명이 있다.

Q : 이들 아동의 성격이나 수업 분위기는 어떠한가?

A :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모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성격은 모두 소극적인 편이다. 작년에도 2명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성격은 소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보다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의 성격이 더 소극적인 것 같다.

Q : 아동의 어머니들의 학교 참여도나 이들과 의사소통은 어떠한가?

A : 전체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있는데 모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아동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들 중 필리핀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얼굴 피부 색이 다르긴 하지만 여자 아이라 한국어도 어색하지 않고 수업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이 학생의 오빠가 3학년에 있는데 한국어가 되지 않아서 거의 수업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다.

Q : 이들 아동들을 위한 필요한 교육이 있는가?

A : 국제결혼 한 자녀들 중에도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도 봤다. 이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도 높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학교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한국어 교실이나 한국 문화 교실, 아동을 위한 국어 교실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인터뷰 자료 7. 한국어 교사

대상: ○○○ (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2년 3개월동안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음)

Q : 어느 기관에서 가르쳤는가?

A : 서울 신도림에 있는 한국외국인근로자센터 및 수원 카톨릭지부의 ‘엠마우스’ 한글 학교

Q : 학생들의 출신 국가는 주로 어디인가?

A : 한국 거주 화교와 결혼한 중국 여성

A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Q :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특징은?

A : 서울 지역의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임. 극소수의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만 되고 실제로 파악할 수는 없음.

A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가정 형편은 대부분 안정적이며 남편이 잘 해 주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음.

Q : 이들 자녀들의 생활은? 문제점은?

A :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방과 후 생활이 한국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A : 특별히 문제를 겪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음.

## 인터뷰 자료 8. 한국어 교사

대상: ○○○ (여, 약 2년 교사 경험)

Q : 어느 기관에서 가르쳤는가?

A : 카톨릭 대전 교구의 한국어학교 ‘모이세,’ 카톨릭 단체에서 주관하기는 하나 종교적 색채는 배제하고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기관임

Q : 학생들의 출신 국가는 주로 어디인가?

A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인, 필리핀, 베트남 등

Q :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특징은?

A : 서울 쪽은 불법체류자가 적을 확률이 높고 서울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음. 천안과 대전, 신탄진에는 공장도 많아 불법체류자가 많았음.

A :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 중에는 전업주부가 거의 없고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요일에만 공부할 수 있고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배우는데 같이 옴.

A :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 고졸 이상 대부분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결혼한 여성보다 훨씬 한국어습득 능력이 뛰어나.

Q : 이들이 겪는 문제점은?

A : 한국 남편이 국제 결혼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남편의 문제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 차이로 인한 경우도 있음. (예. 손님 방문 시 방에 누워 있거나 대접을 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목격함.

A :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필리핀, 베트남 국적이 많았는데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음.

A :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침.

A : 엄마와 애들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시댁 때문에, 신랑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음.

Q : 이들 자녀들의 생활은? 문제점은?

A : 국제결혼 자녀들은 정체성 고민을 하는 것보다 한국능력과 학업성취도는 천차만 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엄마의 한국어 선생 역할을 함.

A : 0세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은 필리핀토착어, 한국어, 필리핀식 영어를 혼합해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한국 사람과 어울릴 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A : 자녀들은 엄마가 학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

## 인터뷰 자료 9.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 관련자

대상: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지역복지팀장)

Q :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일한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A : 5년째, 개관 후부터 계속

Q : 이 센터의 특징은?

A : 국적별 이주노동자들 중 몽골, 베트남이 가장 많음. 이들은 먼 지역에서부터 본 센터의 교육시스템 때문에 특히 성인학습의 경우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보고 찾아 오는 경우가 많음

A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성인을 위한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무료지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해 지구촌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지구촌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학습지도(영어, 수학, 한국어, 미술, 몽골교육), 문화생활, 특별활동 지원(태권도, 탁구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학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A : 다른 문화권보다 가정 단위 이주자가 많은 국가가 몽골이라서 이 센터의 지구촌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100% 몽골아이들로 구성됨. 특히 동대문에는 몽골타운이 있어서 몽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데 이들은 경동시장, 우시장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음. 특히 유목 생활, 농촌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소를 도축한다는 것을 몽골인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런 일을 하고 있음.

A : 다른 나라 출신 아이들은 피부색, 문화 등의 문제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각 문화권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이슬람국가의 경우 출생 몇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음.

Q : 이 센터 학습자 특징은?

A :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 학기제, 성과제로 운영하여 이 결과가 다음 학기 과정에도

반영됨. 2001년도에 최초로 시행, 다른 시민단체들보다 시스템화가 잘 되어있고 교육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 단순서비스 위주가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A : 2003년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아이들이 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지, 교육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학교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참여자세가 달라졌다. 지구촌학교라는 명칭이 학교라는 느낌을 주도록 좀 더 체계화된 교육과정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더니 더 좋은 반응을 얻었다.

Q :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현황은?

A : 대부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교에 보낼 수 없음. 국적획득, 체류허가가 가능한 아동, 미등록 이주노동자자녀는 불법체류하고 있음. 체류허가 받은 아동은 거의 없음. 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해서 오는 경우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몹시 드물다. 부모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녀가 허가를 받으려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

A : 평일 7-8명이 지구촌 학교에 나옴.

A : 대부분은 집이 멀기 때문에 주말에 나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개별학습.

A : 대체로 실제 나이와 학년이 잘 맞지 않음. 실제로 20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과정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례도 있음.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빠져나온 것을 다시 18살 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등록시킨 것. 몽골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온 것임.

A :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 학년에 관계없이 테스트를 거쳐서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해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A : 최근 한 교회단체(선교사 개인)에서 아이들에게 비자를 주는 움직임이 있음(이것이 합법적인 루트를 통한 것인지는 미확인). 이렇게 비자를 주는 단체가 있으면, 아이들이 본 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에 오지 않음. 아이들의 체류와 교육기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더라도 체류허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지속적 교육, 교육권 보장이 불가능함. 체류허가가 보장되어야 함. 실제로 본 센터의 아이들의 절반이상이 지난 12월에 허가를 주는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갔음. 아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음.

A : 많은 이주노동자 자녀가 있었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고(일단 들어가기는 했지만 포기하거나, 나오거나, 다시 들어가지 않은 경우), 왜 적응을 못하였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지구촌 학교를 시작하게 됨.

A :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언어 장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대응하지 못함(진학이 불가능), 학교에서 언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었음. 특히 학교이외의 생활에 대해서 학교가 아이들의 가정환경 등의 상태를 알고,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불가능함.

A : 학교에서 이탈한 학생들이 노동인구로 전락하거나, 제대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일찍 성인이 되어 버림. 특히 비행청소년과 결탁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요소가 있음.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음.

A :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아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치게 되는 나쁜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교육을 보장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과 무관하지 않음.

Q : 이들 가정의 생활은?

A : 부모의 학력은 낮지 않음. 본국의 빈곤으로 인한 이주이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전락했을 경우 아이들이 이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됨.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됨. 부모의 이상향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해야할 이유를 잃어버림. 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음.

A : 부모가 추방당하고 혼자 남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노동인구로 전락함. 고등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많음. 아이로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아버지가 살해당한 몽골 학생의 경우)

A : 부모가 바쁘거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자녀의 '가정통신문, 과제, 준비물' 등 학교생활을 못 챙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녀가 적응하는데 더욱 문제가 생김.

Q : 학교 생활은? 공부는 따라갈 만한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가?

A : 센터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영어 등 학과 과목을 배우고 나서 학교에 갔을 때의 성취도나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

A : 랭귀지코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언어능력이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본 센터에서 랭귀지코스를 밟고 학교에 간 아이들은 성적이 계속 오르고, 성취감 자신감도 높아짐.

A : 초등학교를 5년 동안 다닌 아이가 친구 집에 가본 적이 없음. 한국 부모도 꺼려하고 한국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음. 한국 아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아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배울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조차 않음. 한국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함.

A :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아이들을 사귀거나 자기 나라 아이들끼리 살면서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형성함. 집단의 움직임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

A : 왕따를 시키기 보다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향, 놀리기 보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쓴다든지 하는 상황.

A :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므로 학교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함.

A : 교사가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학교 수업에 참여할 능력이 안 될 것이라고 지나치게 배려하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음. 차별, 적당한 차별, 지나친 배려들을 교육자가 구별하지 못함,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섬세한 배려가 요구됨.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재능이 한국아이들 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가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거나 재능을 펼 기회를 갖지를 못함.

Q :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A : (언어교육) 주5회 3개월 이상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면 말문이 트이고, 6개월이면 의사표현이 가능, 1년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국어 실력이 갖추어짐. 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음. 정규 교육과정에 합류하기 전에 한국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예비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함.

- A : (사회적인 문제) 불법체류자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아해 함. 우리나라는 국제 아동 협약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이것을 시행자, 교육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음.
- A : (학교 생활) 정규교육과정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 받지 않고, 이주자녀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한국인과는 별개의 테스트를 받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교육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뒤떨어지는 학생으로 평가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A : (시각)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외국인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사회문화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 A : (문화교육) 외국인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육도 필요함,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한국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한국에서 6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은 외국인 아이가 세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었음.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나이, 학년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입국한 연도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함. 연차별 교육 필요성.
- A : 이 아이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가능, 2개 국어 이상 가능,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엘리트로서 기능할 수 있음.
- A :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 좋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함.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외국의 문화를 배워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 우리나라 어른들의 정서에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과 사귀기를 꺼려함->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 A : 의료 문제, 진로 문제(학교에 대한 정보 없음, 직업에 대한 정보도 없음. 자신의 장래를 결정할 정보들이 없음)
- A :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사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연구된 결과를 학교가 반영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심지어 급식의 경우에도 문화적인 고려가 필요함. 해산물을 먹지 않고 육식을 하는 몽골인의 경우 점심을 굶는 경우가 종종 있음.)
- A : 잘 적응해서 학급회장이 된 경우도 있다. 담임선생님이 몽골학생인지 파악하지 못

할 정도로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함.

A : 각 구에서 한 학교만 지정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  
라고 본다.

A :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학교생활 전반을 담아 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A : 한국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처럼 처리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A :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제기 이주 노동자 아이들은 입국한지 2년 동안 한국에 대  
한 이미지가 결정된다. 처음 2년 동안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마련  
은 물론, 입국 외국인 부모들의 인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부모는 삶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

A :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 인터뷰 자료 10. 대전 지역 이주노동자 관련 봉사자

대상: ○○○ (대전 지역 이주노동자 관련 봉사, 신부)

A :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무국적자이므로 바로 본국으로 환국시키는 것이 법칙.

A :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들은 정서장애, 더딘 언어발달의 문제를 겪고 있음

A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부모가 동시에 언어연수와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봄. 자녀와 부모가 동시에 참가해야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런 연수를 제공해야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봄.

## 인터뷰 자료 11. 외국인 근로자 자녀

대상 : ○○○ (몽골, 14세, 2002년 입국)

Q : 한국 체류 기간은?

A : 5년 전 10살 때 어머니와 입국했다. 엄마는 지방에서 일하시고 아빠는 몽골에 계  
심.

A : 처음에 말도 안 통해서 혼자 길에 다닐 때는 무섭고 어려웠다.

Q : 한국 입국 후 교육 경험은?

A : 입국 한달 동안 집에 있다가 몇 달 정도 유치원(확실히 어떤 곳인지 기억이 안  
남)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음. 그 후 한국 초등학교 2학년에 입학(몽골에서는  
3학년 이었음)하였고 4학년까지 다녔으나 비자 문제로 학교에서 떠나게 됨.

Q : 정규학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A : 처음에는 단짝친구가 생겨서 한국어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 모르  
는 내용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음. 사이 좋게 지내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냄

A : 받아쓰기가 가장 어려움

A : 처음에는 받아쓰기가 제일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공책을 보여 드리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3학년이 되니까 받아쓰기에도 익숙해짐.

A : 국어시간만 어려웠고 다른 과목은 큰 어려움은 없었다.

Q : 앞으로 어디서 공부하고 싶은가?

A : 재한 몽골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비자문제가 해결되어  
서 한국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Q : 현재 재한 몽골학교 생활은 어떤가?

A : 몽골학교에 다니니깐 한국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면이 있다.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도 몽골어를 잊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 인터뷰 자료 12. 외국인 근로자 자녀

대상: ○○○ (10살, 몽골, 2005년 8월 입국)

Q : 체류 기간은?

A : 엄마, 아빠랑 함께 2005년 8월에 왔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다른 곳에 계심.

Q :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는가?

A : 한국에 와서 바로 3개월 동안 한글학원에 다님.

Q : 한국 생활, 학교 생활은 어떤가?

A : 아직 한국어가 서투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음. 한글을 배우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음.

※ 입국한지 얼마 안 되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많은 대답을 얻지 못함.

### 인터뷰 자료 13. 외국인 근로자 자녀

대상: ○○○ (13살, 몽골)

Q : 한국 체류 기간

A : 세살 때 와서 6년 동안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8세) 다니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돌아옴.

Q : 한국 입국 후 교육 경험은?

A :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어서 8세 때 바로 입학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다녔음

Q : 정규 학교 생활은 어땠는가?

A : 한국학교 다닐 때 한국친구도 있었음.

A : 한국어가 특별히 어렵거나 공부가 어렵지 않았음.

Q : 앞으로 어디서 공부하고 싶은가?

A : 현재 재한몽골 몽골학교에서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한국학교(중학교)로 진학하고 싶음.



## 인터뷰 자료 14. 외국인 근로자

대상: ○○○ (40대, 몽골)

Q : 체류 기간

A : 한국생활 2년째, 학교 선생님 자격으로 비자를 받음.

Q : 한국어 수학 경험은?

A : 몽골 학원에서 2달 정도 한국어를 배우고 입국.

A :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3학기 배움.

Q : 자녀들의 교육은?

A : 딸이 두 명 있는데 현재 작은 딸은 부산 지구촌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중이며 큰 딸은 한국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

A : 작은 딸이 작년 6월에 한국에 옴. 3개월 정도 학교 다니면서 한국어를 금방 배움. 대화나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음.

Q : 자녀 교육에 어려운 점은?

A : 한국과 몽골의 학제가 달라 대학 진학이 쉽지 않음. 한국에서 11년 반을 공부해야만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만 몽골은 10년을 공부하면 진학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딸이 선교사 자녀를 위해 설립된 부산 지구촌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진학을 하려면 몽골로 돌아가야 함.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권리를 포기해야 함) 딸은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함.

Q :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자녀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A : 한국학교에 진학하면 처음에는 왕따를 많이 당함. 한국 학생들이 약간 꺼려해서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 외로워하며 어울리지 못함.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극복한 것을 본 적이 있음.

A : 일부 한국 학생들이 돈을 내놓으라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A : 본국에서 한국에 입학하자마자 처음부터 한국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자기 학년보다 아래 학년으로 들어감. 이 때 언어장애, 친구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음. 그러나 나중에는 적응해서 몽골말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생김.

A : 적응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몽골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 장애를 겪는다. 그러므로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국어와 자국문화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Q : 외국인근로자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A : 부모의 한국어 수준은 집과 직장에서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오는 과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님. 학교생활을 도와줄 수가 없음. 학교만 보내는 것이지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

A :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참가하지 못하고 주위의 친한 한국 사람에게 부탁함.

Q : 주위에서 자녀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는?

A : (사례 1) 한 가정에서 자녀가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다 익힌 후 바로 한국학교에 진학시킨 경우가 있음. 이 아이는 한국 온 지 3년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에서 도 아이가 한국어로 대화함. 몽골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몽골 친구들이랑 놀지 못해서 피하게 됨.

A : (사례 2) 부모가 강제출국당한 후 아이의 성격이 나빠짐. 부모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이를 홀로 한국에 남겨 둬. 아이가 인내심이나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함.

## □ 연 구 진 □

연구원 :        책임연구원     조영달(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윤희원(서울대학교)  
   박상철(서울교육대학교)  
                  보조연구원     최영인(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위원 :     민병곤 (경인교육대학 교수, 전 평가원 초등교재 담당)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전 전주교대 교수)  
                  이수미 (한국사이버대 국제결혼자 한국어 강사)  
                  홍은실 (건국대 언어교육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강사)  
                  박대산 (진주지원 판사)  
                  남빅토르 (타쉬켄트니자미사범대학 한국학과 학과장)  
                  태평무 (북경 중앙민족대학 교수)  
                  T. Mozol (전 블라디보스톡 극동대 강사)

보조 인력 :     김승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료 전사 담당)  
                  김평원 (마포고등학교 교사, 통계학 전공)